

‘침묵의 나선’과 ‘정보의 나선’

다수의 의견표명과 소수의 정보추구

박 승 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 예 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1. 서론

기존 연구들은 의견 형성과 표명 과정이 사회적 여론 분포체계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현저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Noelle-Neumann(1974, 1977, 1984, 1985, 1990)의 ‘침묵의 나선모형’은 개인의 의견표명 행위가 사회적 의견분포에 대한 지각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 자기 의견 표명을 활성화하는 반면, 소수의 의견에 속한다고 지각하면 사회적 고립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은 점차 널리 말해지는 데 반하여 소수의 의견은 점차 침묵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spiral of silence)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묵의 나선모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모형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견분포 지각 이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가 아니면 침묵하는가의 여부에만 주목함으로써, 여론 형성과 표명이라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전체 과정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제한점을 안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의견표명 이외의 여러 가지 심리적, 행동적 측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 둘째, 이 모형은 소수 집단을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형에서 인간은 다만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하면서 다수집단의 압력에 즉각 굴복하는 피동적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 모형은 소수의 침묵을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상태, 즉 행동 상실의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침묵의 나선모형에서 예견하듯이 다수의 여론 압력에 직면한 소수 집단이 비록 침묵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침묵 그 자체가 소수의 무기력 또는 패배적 복속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여론형성 과정을 하나의 다차원적·종합적·전반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면, 소수는 다수 앞에서 불가피하게 침묵하면서도 ‘의견표명’ 이외의 영역이나 단계에서는 다수의 압력에 대항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이며 심지어는 저항적·도전적일 수도 있는 심리적·행동적 반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형은 ‘의견표명’이라는 최종적 행동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수의 압력과 지배를 돌파해내기 위하여 행해지는 소수의 다면적 활동 또는 선택과,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동의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론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포괄해내지 못하는 이론적 범주, 즉 여론형성 과정 중 의견표명 이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의견기후 지각이라는 인지적 활동의 결과로 유발되는 결과 중 ‘의견표명’ 이외에 소수와 다수의 ‘정보추구’라 하는 또 하나의 차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기후지각은 소수와 다수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각각의 의견과 의견기후에 대한 지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추구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본 논문은 침묵의 나선모형에 내재된 이론상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의견형성과 표명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침묵의 나선모형의 이론적 한계

Noelle-Neumann은 여론형성 메커니즘을 개인들의 의견기후 지각과 의견표명 행위가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나선형적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즉, 사람들은 고립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의사통계적 감각’(quasi-statistical sense)을 동원, 자신 주변의 여론 환경, 즉 ‘의견기후’(climate of opinion)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사회적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은 다시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표명 행위는 다시 전반적인 여론 환경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여론분포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는 사람들의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회체계 내부에 하나의 연속적 순환과정으로서의 ‘침묵의 나선’을 발생시킨다.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이 침묵의 나선모형의 현실적 설명력을 검토해 왔다. 대표적으로, Glynn & McLeod(1984), Salwen, Lin & Matera(1994), Taylor(1982)들은 대체적으로 침묵의 나선 모형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반면, Katz & Baldassare(1992)는 소수의 의견표명 수준은 처음부터 다수에 비해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 침묵의 나선 모형을 반증하였다. 이 밖의 일련의 연구들도 침묵의 나선모형이 제기하는 핵심적 가설들의 예측과 상반되거나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분석 결과들을 보고하였다(가령, Glynn & McLeod, 1983).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은 사람들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인으로서 ‘고립 공포’ 이외의 다른 동기 변인이나 중계 변인들, 가령 자아 관여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정도, 이슈에 대한 지식, 자기 효능성 등의 영향력을 추적한 바 있다(가령, Katz & Baldassare, 1996; Lasorsa, 1991; Salmon & Neuwirth, 1990; Willnat, 1996).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침묵의 나선 모형은 첫째, 의견기후의 지각이 유발하는 반응은 다차원적일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고, 그것을 의견표명의 적극성 여부라는 단일하고 일차적인 문제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립 공포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의 침묵을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수의 영향력만을 인정, 강조하고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Price & Allen, 1990 참조). 그러므로 침묵의 나선 모형은 다수의 압력 앞에서 소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만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과연 이 경우 소수의 침묵이 진정 소수의 비활동(inaction)을 말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여론을 하나의 일방적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수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수의 영향력과도 관련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Price & Allen, 1990).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견기후 지각 이후 나타나는 사람들의 정보추구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기후 지각은 개인들의 의견표명 의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기의견과 의견기후 지각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추구 활동을 유발시킬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주목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보추구 활동은 능동성과 양방향성을 기본 속성으로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정보추구행위는 단순히 타인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소극적 관찰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찾는 능동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또한 하나의 양방향적 인간활동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지지정보(self-supportive information)에 대한 추구나, 그것들과 상반되는 비지지정보(non-supportive information)에 대한 추구로 나타날 수 있다.

3. 소수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보추구

(1)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영향력

침묵의 나선모형이 이처럼 다수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지배적인 것으로, 그리고 소수의 역할을 소극적, 소멸지향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편향성을 보이는 데 반하여, Forsyth(1990), Moscovici(1976, 1980, 1985a, 1985b, 1991), Tajfel & Turner(1979), Turner(1987, 1991)를 위시한 일군의 사회적 영향력 연구자들은 다수의 영향력과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인정하는 보다 균형있는 이론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가령, Forsyth(1990)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순응(conformity)과 비순응(nonconformity)으로 양분하고, 다시 전자를 순종(compliance)과 전환(conversion), 그리고 후자를 독립(independence)과 반항(counterconformity)으로 구분한다. 즉, 다수의 영향력 앞에 놓인 소수의 유일한 선택은 순응밖에 없다고 보는 침묵의 나선 모형과 달리, 그는 소수의 비순응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인정한다.

특히 Moscovici(1976, 1980, 1985b, 1991; Moscovici & Lage, 1976; Moscovici, Lage, Naffrechoux, 1969)를 위시한 일련의 사회심리학자들은 집단적 상호작용 과

정에서 다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가령, Asch, 1956; Brown, 1988; Festinger, 1950, 1954, 1957; Milgram, 1974) 일련의 사회심리학적 논의들을 수용하면서도, 이와 함께 소수의 영향력을 동시에 인정하면서 그것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변동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Moscovici(1980)는 다수는 주로 비교과정(comparison process)을 통해 소수의 굴복, 즉 순응(conformity)을 유발하지만, 소수는 다수로 하여금 확인과정(validation process)을 통하여 소수의 관점을 숙고하고 이해하려는 인지적 과정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전환(conversion)을 발생시킬 수 있다(가령, Doms & Van Avermaet, 1980; Moscovici & Personnaz, 1980, 1986; Mugny, Papastamou & Sherrard, 1982; Personnaz, 1981; Turner, 1991). 즉, 소수의 영향력은 다수의 영향력과 동시에 작동하면서, 주로 인지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영향력의 관철 과정은 다수가 소수를 무력화시키는 일방적 지배과정도 아니라, 양자 사이의 상호과정이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소수는 집단압력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자로서 존재하면서, 때로는 다수의 인지와 지각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등 변동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수와 소수 사이의 영향력 상호작용의 결과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순응(conformity)만을 불가피하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normalization)와 혁신(innovation)이라는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Moscovici, 1985a; Price & Allen, 1990). 여기에서 ‘순응’은 소수가 다수의 입장에 통합됨으로써 집단적 갈등이 해결되는 방식인 반면, ‘정상화’는 다수와 소수의 상호 타협을 통해 양자를 통합함으로써, 그리고 ‘혁신’은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여 그들의 의견을 집단 전체의 의견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길을 말한다.

(2) 의견기후 지각과 불확실성

침묵의 나선모형은 사람들이 사회적 의견기후 관찰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타인들의 의견들 사이의 일치 또는 불일치의 정도를 지각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하 ‘다수지각자’)은 타인과의 일치 정도를 크게 지각하고 불일치의 정도를 작게 지각하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이하

‘소수지각자’)은 타인과의 불일치의 정도를 크게 지각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지각되는 일치/불일치는 그것의 정도만큼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실성/불확실성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타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만큼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높은 확실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견에 대한 확실성/불확실성 인식은 그 의견과 관련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지식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회적 또는 상황적 정당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Arrow(1984)의 견해처럼 불확실성은 행위자의 세상에 대한 무지상태, 환경에 대한 이해불가능성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Moscovici(1976)나 Turner(1985, 1987, 1991)의 이해처럼 세상의 객관적 모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령 사회적 갈등을 창출하는 타인과의 불일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불확실성은 객관적 정보 자체만이 아니라 갈등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며, 또한 정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자기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역시 불확실성의 사회규범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불확실성은 타인과의 일치를 통해 줄어들고 타인과의 불일치에 의해 증가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이 인간의 인지적 활동과 전적으로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타인과의 일치/불일치 여부 판단 자체를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정보를 읽어내는 인지적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불확실성의 생산과 감소는 사회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Turner & Oakes, 1986). 이러한 논의들에 기초한 실험연구들은 타인과의 일치나 불일치의 수준에 의하여 사람들이 지각하는 확신이나 불확실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McGarty, Turner, Oakes, & Haslam(1993)은 타인과의 지각된 불일치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일치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종합하건대 지각되는 불일치의 수준에 의하여 지각된 불확실성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지각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불확실성과 정보추구

그렇다면 집단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인간들의 정보추구 행위와 어

떠난 관련을 맺고 있는가? 첫째, 불확실성 지각의 강도와 정보추구 행위 수준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인간의 불확실성 지각은,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정보추구 행위를 유발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에 대해 타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 때, 사람들은 자기의견이 가지는 사실적, 규범적 적절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게 되고, 이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그 쟁점에 대한 정보추구 행위에 나서게 될 것이다.

Mills(1965)는 사람들이 문제해결 상황에서 해결 대안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려 하며, 확실한 상황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 행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은 여러 개의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문제해결책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그 대안들의 적합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자신의 결정행위에 대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추구 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Lanzetta(1968)는 갈등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정보추구 행동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종합하건대 환경에 대해 지각된 불확실성은 그것의 해소를 위한 정보욕구와 정보추구 행위를 유발시키며, 이때 지각된 불확실성이 클수록 정보추구 행위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지각에 사회영향력 이론을 도입하면 집단상황 속에서 타인과의 불일치를 더 크게 느끼는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느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의견기후 지각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보다 타인과의 불일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며, 그 결과 더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지각하는 소수지각자가 다수지각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 행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인지부조화와 정보추구

둘째,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는 각각 어떠한 종류의 정보에 대한 추구를 선호할 것인가? 추구되는 정보의 종류와 관련하여 인지부조화 이론과 선별적 노출 이론이 설명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Festinger(1957)의 인지부조화 이론을 의사결정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조화 상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추구

행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즉, 상호경쟁적인 두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대안이 가지는 바람직한 모습을 인식하고 심리적 부조화를 느낄 수 있다. 이때 지각되는 부조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선택된 대안에 관한 지지정보와 포기한 대안에 관한 비지지정보를 추구하되, 선택 대안에 관한 비지지정보와 포기한 대안에 관한 지지정보를 회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별적 노출 이론 역시 사람들은 그들의 기존 태도나 관심에 일치하는 정보에 접촉하려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진 정보는 회피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가령, Adams, 1961; Ehrlich, Guttman, Schonbach, & Mills, 1957; Mills, Aronson, & Robinson, 1961; Schramm & Cater, 1959; Stempel 1981).

그러나 정보추구 행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반드시 지지정보에 대한 명백한 선호라는 일관된 분석 결과만을 얻어온 것은 아니다. Sears & Freedman(1967)이 지적하듯이 선별적 노출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들은 이 가설에 대한 단순한 지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Brodbeck(1956)와 Sears(1965) 등은 비지지정보가 지지정보보다 더욱 선호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Feather(1962), Mills & Ross(1964), Sears(1966) 등의 연구 결과에서는 지지정보와 비지지정보에 대한 분명한 선호가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추구에 관한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이론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Brock(1965)과 그의 동료들(Brock, Albert, & Becker, 1970)은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정보라 하여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사람들의 정보추구 행위는 정보의 지지성, 정보의 친숙성, 정보의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실제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입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고,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관한 지지정보가 새로운 것일 경우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이미 친숙한 내용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추구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지정보에 대한 추구를 확신이나 불확실성의 수준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Freedman(1965)에 의하면 사람들의 비지지정보에 대한 선호는 그 정보가 가지는 유용성과 흥미 이외에 확신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조화적 정보를 더 추구하지만,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비지지정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Mills & Ross(1964) 역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 수준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지지정보를 추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Mills(1965)의 실험연구 결과 사람들이 자기의견에 대하여 낮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 지지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선호를 보이지만, 비지지정보에 대한 선호는 확신의 수준과 무관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Mills의 연구 결과는 Festinger의 가정과는 달리, 부조화된 정보에 대한 회피가 부조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Sears & Freedman(1967) 역시 인지부조화 이론이나 선별적 노출 이론을 따를 경우 사람들의 비지지정보에 대한 노출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당파적 성향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가령 지각된 정보의 유용성에 의하여 정보에 대한 노출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수와 소수 집단의 의견기후 지각과 관련시키면, 소수지각자들은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지각하면서, 그것과 자기 의견과 타인 의견과의 일치를 이루려는 욕구 또는 고립되지 않으려는 본능 사이에 높은 수준의 부조화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지각자들은 타인과의 동의나 일치를 높게 지각함으로써, 그 결과 낮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낮은 수준의 인지부조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기후 지각은 정보추구행위의 강도와 방향 두 가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정보추구행위의 강도와 관련하여 소수지각자들은 다수지각자들보다 더욱 높은 불확실성을 느끼고, 따라서 더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정보추구 행위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소수지각자들은 다수지각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정보와 비지지정보 모두를 더욱 강도 높게 추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의견기후 지각이 유발하는 정보추구행위의 방향성은 인지부조화의 강도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소수지각자 집단은 다수지각자 집단에 비하여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의 해소를 향한 심리적 압력을 보다 강력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소수는 한편으로는 정보추구 행위의 적극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지부조화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은 비지지정보에 비하여 부조화를 감소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지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지각자 집단은 낮은 수준의 인지부조화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그 결과 지지정보에 대한 다수지각자들

의 선별적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소수지각자들에 비하여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즉, Moscovici의 설명처럼 다수는 소수가 전달해 주는 인지적·정보적 충격을 받아들이고 소수의 관점을 확인하여 세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이러한 소수 영향력에 직면하여 지지정보보다 비지지정보를 상대적으로 더욱 추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 연구문제와 연구가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의견표명 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다수지각자는 소수지각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의견 표명 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정보추구 의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2]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3] 소수지각자는 다수지각자에 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추구 의지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의견기후 지각은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의 정보추구 방향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다수지각자의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는 지지정보 추구의지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2] 소수지각자의 지지정보 추구의지는 비지지정보 추구의지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5. 연구방법

(1) 이슈의 선정과 설문조사 절차

2000년 10월 중순 이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바 있는 외규장각 도서반환 방식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관련사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견기후 지각이 유발하는 정보추구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이슈화되어 그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그 결과 사람들의 정보추구 행위가 완료된 사안을 회피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절대 다수의 찬성 혹은 반대가 사회적으로 확립된 사안이 아니라, 찬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이슈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외규장각 도서반환문제는 2000년 10월 19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불법적으로 탈취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대등한 문화재 교환 전서’ 형식으로 2001년까지 반환 완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쟁점화되었다. 이 방식의 내용은 프랑스가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입하는 대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등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를 프랑스에 반출한다는 것이었다. 협상 결과에 대하여 한국사회 여론은 ‘원칙론’과 ‘현실론’으로 분열되었다.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탈당한 우리 것을 찾아오기 위해 우리 것을 다시 내어준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약탈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행위라며 반환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하라고 촉구하였다. 반면 현실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제관행상 문화재의 무조건적 반환사례는 드물고 약탈 문화재의 반환을 강요할 수 있는 국제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감정이나 원칙론만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면서, 우리의 여본(餘本)을 주고 진본(眞本)을 되찾는 방안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외규장각 도서반환 이슈는 11월초 예정된 다음 협상을 앞두고 더욱 첨예화되었다. 특히 한국이 프랑스에 넘겨주기로 제안한 도서 일부가 복본(複本)이 아니라 국내 유일본으로 알려지면서, 11월 3일 11개 학술단체가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외규장각 도서의 무조건적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00년 11월 9일과 14일, 지방소재 2개 대학에서 다양한 학과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대단위 수업 수강생 각각 98명과 1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제기된 외규장각 도서반환 문제가 정치권, 학계 등 엘리트 중심 공방에서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직후였다. 총 247개의 회수설문지 중 일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5개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과 관련하여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주요 변인의 측정

의견기후 지각은 이슈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의견과 사회 전반의 의견분포에 대한 응답자 자신의 판단을 비교하였다. 설문지에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방식에 관한 두 가지 입장, 즉 원칙론과 현실론을 각각 진술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이를 읽고 난 이후 응답자 자신의 의견이 이들 두 가지 입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묻고, 또한 이들 중 어느 의견이 사람들로부터 더욱 지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자신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모두 원칙론으로 응답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을 모두 현실론으로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다수의 견으로 지각하는 응답자, 즉 다수지각자로 분류하고, 이와 달리 자신의 의견은 원칙론이지만 다수의 의견은 현실론이라고 응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은 현실론이지만 다수의 의견은 원칙론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즉 소수지각자로 분류하였다.

의견표명 의지는 ▶동아리나 학과모임, ▶강의시간, ▶총학생회 주최 공개 토론회 각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한 문제가 거론된다면 내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각 라이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여 응답점수의 평균을 구하였다. 이들 3개 문항 점수는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Cronbach's $\alpha=.89$).

정보추구 의지는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칙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현실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칙론을 주장하는 신문 기사를 읽어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현실론을 주장하는 신문 기사를 읽

어보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원칙론을 지지하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이를 시청하겠다.”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반환방식에 대해 현실론을 지지하는 TV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이를 시청하겠다.”라는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각각 라이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이들 6개 문항은 앞에서 설명한 응답자 자신의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과의 비교를 통해 응답자 자신의 의견에 대한 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Cronbach's $\alpha=.81$)와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묻는 3개 문항의 평균점수(Cronbach's $\alpha=.73$)를 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들 전체 6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정보추구 의지를 측정하였다(Cronbach's $\alpha=.88$).

6. 분석 결과

자료분석 결과, 응답자 235명의 자기의견과 지각된 다수의견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났다.

<표 1> 응답자들의 자기의견과 지각된 다수의견의 분포

		지각된 다수의견		(합계)
		원칙론	현실론	
자신의 의견	원칙론	88명	39명	127명
	현실론	31명	77명	108명
	(합계)	119명	116명	235명

<표 1>에 나타나듯이 다수지각자는 자신의 의견이 원칙론이면서 동시에 원칙론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한 88명과, 자신의 의견이 현실론이면서 동시에 현실론을 다수 의견으로 지각한 77명을 합하여 총 165명(70.0%)이었으며, 소수지각자는 그 나머지 70명(30%)이었다.

일련의 t-test를 통하여 집단간 평균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가설들을 검증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비교집단들의 변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 다수지각자 집단($M=4.31$, $SD=1.37$, $n=165$)이 소수지각자 집단

($M=3.86$, $SD=1.37$, $n=7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의 보다 높은 의견표명 의지를 보여주었다($t(233)=2.29$, $p<.025$, one-tailed).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1]의 예측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수지각자 집단($M=4.96$, $SD=1.22$, $n=70$)이 다수지각자 집단($M=4.47$, $SD=1.20$, $n=165$)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수준의 보다 높은 지지정보 추구의지를 보여주었다($t(233)=2.84$, $p<.005$, one-tailed). 이러한 결과는 [연구가설 2-1]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연구가설 2-2]의 예측과 동일하게 비지지정보 추구의지에서도 소수지각자 집단($M=4.64$, $SD=1.23$, $n=70$)의 평균치가 다수지각자 집단($M=4.30$, $SD=1.12$, $n=165$)의 그것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t(233)=2.10$, $p<.025$, one-tailed). 지지정보 추구의지와 비지지정보 추구의지를 합한 전체적 정보추구의지에서도 소수지각자 집단($M=4.80$, $SD=1.16$, $n=70$)이 다수지각자 집단($M=4.38$, $SD=1.10$, $n=165$)에 비하여 높은 평균치($t(233)=2.60$, $p<.005$, one-tailed)를 보여줌으로써 [연구가설 2-3] 역시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수지각자 집단의 지지정보 추구의지($M=4.47$, $SD=1.22$, $n=165$)는 비지지정보 추구의지($M=4.30$, $SD=1.12$, $n=16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t(164)=2.92$, $p<.005$, one-tailed), [연구가설 3-1]은 부정되었다. 반면, 소수지각자 집단의 경우, 지지정보 추구의지($M=4.96$, $SD=1.20$, $n=70$)가 비지지정보 추구의지($M=4.64$, $SD=1.23$, $n=70$)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t(69)=3.92$, $p<.001$, one-tailed), [연구가설 3-2]는 지지되었다.

7. 논의 및 결론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모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연구가설 1]이 지지된 사실, 즉 다수지각자 집단이 소수지각자 집단에 비하여 보다 높은 의견표명 의지를 나타낸 결과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가지는 강력한 현실 예측력을 보여준다. 즉, 침묵의 나선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소수는

다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견표명보다는 침묵을 선택하려 한다는 경향성을 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그러나 분석 결과는 다수의 영향력 앞에 선 소수의 침묵이 그들의 철저한 무력화 또는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즉, 소수는 의견표명 차원에서는 침묵을 선택할 망정,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활동적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들이 [연구가설 2-1], [연구가설 2-2], [연구가설 2-3]을 모두 지지하였다는 사실, 즉 소수지각자들이 다수지각자들보다 지지정보, 비지지정보, 그리고 전체정보 추구의지에서 각각 좀더 높은 강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소수의 침묵이 결코 그들의 총체적 무력화 또는 비활성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침묵의 나선모형이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차원, 즉 의견표명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서의 정보추구 행위가 가지는 이론적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침묵의 나선모형은 소수가 다수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다는 경향성을 기술해 줄 뿐, 다수의 압력 앞에서 침묵하는 소수가 수동적이며 굴종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추구 활동을 도모하는 활성화된 존재임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수지각자들은 침묵 속에서도 다수지각자들에 비하여 타인들과의 불일치와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지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적극적인 정보추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곧 소수의 침묵이 결코 커뮤니케이션적 비활동(inac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다수에 의하여 강제되는 ‘침묵의 나선’의 이면에는 소수에 의하여 주도되는 ‘정보의 나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의 검증 결과, 소수지각자와 다수지각자 집단 모두 비지지정보에 비하여 지지정보를 더 추구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기후 지각의 결과, 자기 자신과 사회와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조화를 강하게 느낄 것으로 예측되는 소수는 이러한 부조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기존 태도·신념·의견에 일치하는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려 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다수지각자들은 심리적 부조화의 정도가 낮을 것으로 보고 소수의견이 유발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지정보보다는 비지지정보를 더 추구할 것으로 예측한 [연구가설 3-2]는 반증되었다. 즉, 다수 역시 소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심리적 부조화를 해소하

기 위하여 지지정보에 대한 선별적 추구경향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Moscovici의 관점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인지적·정보적 충격을 통하여 다수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소수 영향력의 작동을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여론형성과 표명과정 중 의견표명이라는 단일한 행동측면에만 주목하는 침묵의 나선모형을 이론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이 과정을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모형은 소수의 침묵만을 강조한 나머지, 의견표명 부재상태의 이면에 존재하는 소수의 잠재적이고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 전반에 주목하지 않았다. 즉, 다수의 의견표명 행위가 가지는 적극적 의미를 인정한 반면, 소수의 침묵 저변에 존재하는 적극성을 간과하였다. 여론형성과 표명이라는 하나의 기나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단순한 '표명 여부'만으로는 포괄될 수 없는 복합성과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여론형성과 표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와 다수 사이의 힘의 관계를 '침묵의 나선'이라는 기계론적이며 일방적인 관점에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소수에 의하여 주도될 수 있는 '정보의 나선'을 함께 고려하는 다면적이고 동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⁰

참고 문헌

- Adams, J. S. (1961). Reduction of cognitive dissonance by seeking consonant in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74-78.
- Arrow, K. J. (1984). *Individual choice under certainty and uncertainty*. Beverly Hills, CA: Sage.
- Asch, S. 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I.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a), 1-70.
- Brock, T. C. (1965). Commitment to exposure as a determinant of information recep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0-19.
- Brock, T. C., Albert, S. M., & Becker, L. A. (1970). Familiarity: Utility and supportiveness as determinants of information recep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4), 292-301.
- Brodbeck, M. (1956). The role of small group in mediating the effects of propaganda.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166-170.

- Brown, R. J. (1988). *Group process: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Oxford: Blackwell.
- Doms, M., & Van Avermaet, E. (1980). Majority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and conversion behavior: A repl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83-292.
- Ehrlich, D., Guttman, I., Schonbach, P., & Mills, J. (1957). Post-decision exposure to 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98-102.
- Festinger, L. (1950).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view*, 57, 271-282.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l: Row, Peterson & Co.
- Feather, N. T. (1962). Cigarette smoking and lung cancer: A study of cognitive dissonanc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14, 55-64.
- Forsyth, D. (1990). *Group dynamics*. Pacific Grove: Brooks/Cole.
- Freedman, J. L. (1965). Preference for disson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 287-289.
- Glynn, C. J., & McLeod, J. M. (1983). Public opinion, communication processes, and voting decisions. In M. Burgoon (Ed.), *Communication yearbook 6*. Beverly Hills, CA: Sage.
- Glynn, C. J., & McLeod, J. M. (1984). Public Opinion du jour: An examination of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Quarterly*, 48, 731-740.
- Katz, C. & Baldassare, M. (1992). Using the "L-Word" in public: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conservative Grange County, California. *Public Opinion Quarterly*, 56, 232-235.
- Katz, C., & Baldassare, M. (1996). Measure of attitude strength as predictors of willingness to speak to the media.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3, 147-158.
- Lanzetta, J. T. (1968). Effects of uncertainty and importance on information search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479-486.
- Lasorsa, D. L. (1991). Political outspokenness: Factors working against the spiral of silence. *Journalism Quarterly*, 68, 131-140.
- McGarty, C., Turner, J. C., Oakes, P. J., & Haslam, S. A. (1993). The creation of uncertainty in the influence process: The roles of stimulus information and disagreement with similar oth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17-38.
- Milgram, S. (1974). *Obedience to authority*. New York, N.Y: Harper & Row.
- Mills, J. (1965). Effect of certainty about a decision upon postdecision exposure to consonant and disson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749-752.
- Mills, J., Aronson, E., & Robinson, H. (1961). Selectivity in exposure to in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50-253.
- Mills, J., & Ross, A. (1964). Effects of commitment and certainty upon interest in supporting inform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8, 552-555.
- Moscovici, S. (1976). *Social influence and social change*. London: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0). Toward a theory of conversion behavio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pp. 209-239). New York: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5a).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2, pp. 347-412). New York, N.Y: Random

- House.
- Moscovici, S. (1985b).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scovici, S. (1991). Silent majorities and loud minorities. *Communication Yearbook*, 14, 298-308.
- Moscovici, S., & Lage, E. (1976). Studies in social influence: III. Majority vs minority influence in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49-74.
- Moscovici, S., Lage, E., & Naffrechoux, M. (1969). Influence of a consistent minority on the responses of a majority in a color perception task. *Sociometry*, 32, 365-380.
- Moscovici, S., & Personnaz, B. (1980). Studies in social influence: V. Minority influence and conversion behaviour in a perceptual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70-82.
- Moscovici, S., & Personnaz, B. (1986). Studies on latent influence by the spectrometer method: I. The impact of psychologization in the case of conversion by a minority or a major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345-360.
- Mugny, G., Papastamou, S., & Sherrard, C. (1982). *The power of minorities*. London: Academic Press.
- Noelle-Neumann, E.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4, 43-51.
- Noelle-Neumann, E. (1977). The turbulences in the climate of opinion: Methodological application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1, 143-158.
- Noelle-Neumann, E. (1984). *The spiral of silence*.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elle-Neumann, E. (1985). The spiral of silence: A response. In K. Sanders, L. L. Kaid, & D. Nimmo (Eds.),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1984* (pp. 66-94).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Noelle-Neumann, E. (1990). A theory of public opinion: The concept of the spiral of silence. *Communication Yearbook*, 14, 256-287.
- Personnaz, B. (1981). Study in social influence using the spectrometer method: Dynamics of the phenomena of conversion and covertness in perceptual respons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431-438.
- Price, V., & Allen, S. (1990). Opinion spirals, silent and otherwise: Applying small-group research to public opinion phenomena. *Communication Research*, 17, 369-392.
- Salmon, C. T., & Neuwirth, K. (1990). Perceptions of opinion "climates" and willingness to discuss the issue of abortion. *Journalism Quarterly*, 67, 567-577.
- Salwen, M. B., Lin, C., & Matera, F. R. (1994). Willingness to discuss "Official English": A test of three communities. *Journalism Quarterly*, 71, 282-290.
- Schramm, W., & Cater, R. F. (1959). Effectiveness of a political televi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23, 121-126.
- Sears, D. O. (1965). Biased indoctrination and selectivity of exposure to new information.

- Sociometry*, 28, 363-376.
- Sears, D. O. (1966). Opinion formation and information preference in an adversary sit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 130-142.
- Sears, D. O., & Freedman, J. L. (1967).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31(2), 195-213.
- Stempel, G. H. (1981). Selectivity in readership of political news. *Public Opinion Quarterly*, 45, 400-404.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Taylor, D. G. (1982). Pluralistic ignorance and the spiral of silence: A formal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46, 311-355.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u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 Theory and Research*, Vol. 2 (pp. 77-122). Greenwich, CT: JAI Press Inc.
- Turner, J. C. (1987). The analysis of social influence.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lackwell.
- Turner, J. C. (1991). *Social influenc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Turner, J. C., & Oakes, P. J. (1986).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identity concept for social psychology with reference to individualism, interactionism and social influenc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 237-252.
- Willnat, L. (1996). Mass media and political outspokenness in Hong Kong: Linking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87-212.